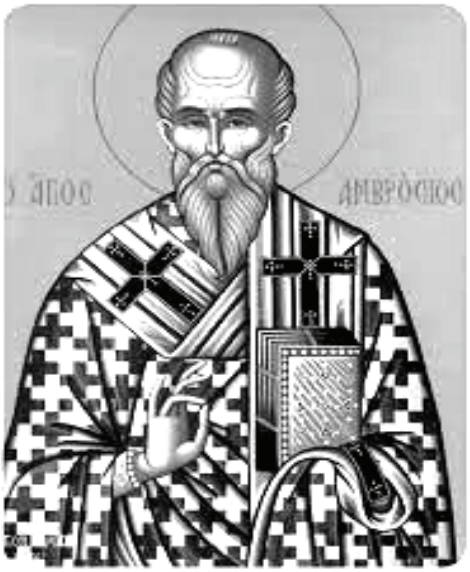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암브로시오스 밀라노의 주교

루가 제14주일

나훔 예언자,성 필라레토스 수사, 성 아나니아 순교자

제7조, 조과복음 2(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예언자 찬양송 / 84. B 262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 사도경: 에페소 2,14–22 / 봉독서 318
- 복음경: 루가 18,35– 43 / 132. B 8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암브로시오스 밀라노의 주교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의 용감한 성직자인 성 암브로시오스 밀라노의 주교(4세기)를 12월 7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 암브로시오스는 용기와 신념으로 그 시대의 성 바실리오스라고 불립니다. 그라티아누스 로마 황제(367~383 재위)의 어머니 아리우스파인 유스티나에 맞선 모습이 성 대 바실리오스가 모데스토스 지역 통치자에 맞선 모습과 닮았고, 암브로시오스 성인이 테오도시오스 황제에게 한 말씀이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말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리우스파들이 성인으로부터 교회를 빼앗아가려 했을 때, 성인은 황제에게 "주교는 절대 주님의 성전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데살로니카의 주민 칠천 명을 대량 학살하고도 성당에 들어가서 성체성혈을 영하려 했을 때, 암브로시오스 성인은 성당 문 앞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황제는 다윗도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암브로시오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범죄를 본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회개를 본받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베푸는 자선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축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영적, 육적으로 금식을 하며 준비한다.

육신을 위한 금식으로는 즐거움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간결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생활을 하며 절제된 식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또한 영적인 금식으로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다 많이 보내는 일이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해 명상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육적 금식을 잘 지킨다 해도 금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선의 결실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금식이며 의미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다.

진정한 자선에 대한 의미는 구약성서에 기록된 토비트의 삶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토비트는 평생 진리와 선행의 길을 살아왔다. 그는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다. 또한 죽은 이를 땅에 묻어주는 일을 하면 큰 벌을 받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서 성 밖에 내버려지면 그들을 몰래 묻어주었다.

어느 날 니느웨의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토비트가 길가에 방치된 죽은 사람을 묻어준다고 임금에게 고발했다. 이를 알게 된 임금은 그의 아들과 부인을 제외한 모든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토비트까지 죽이려고 찾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토비트는 몸을 숨기고 두려워 도망을 다녔다. 임금이 죽은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토비트는 가족들로부터 풍성한 잔칫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맛있게 잘 차려진 음식상을 보고 토비트는 아들 토비아에게 말한다. “얘야, 가서 니느웨로 끌려온 우리 동포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잊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보는 대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런다. 얘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살해되어 장터에 던져 버려진 사람을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이 말을 들은 토비트는 음식은 맛보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나 그 주검을 날라다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한 다음 해가 진 후에 땅을 파고 그를 묻어 주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토비트의 유언을 되새겨 보는 기간이 되어야겠다.

“—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 네가 곤궁에 빠지게 되는 날을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이다.”(토비트기: 토비트의 유언 4장 7절-9절)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성가 작가 성 로마노스와 성탄 시기송

교부 학자들에 따르면, 6세기의 성가 작가였던 로마노스 성인은 아마도 정교회의 가장 유명한 전례성가 작가이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은 예를 들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상관없이 최고의 시인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는 정도이며, 따라서 그는 그리스 중세의 최고 시인이라고 불려졌다.

로마노스가 최고의 완성도로 끌어올린 시적 형태는 콘타키온, 곧 시기송인데 이는 일종의 찬양시 형식의 설교로서 각기 '이코스'(ikos)라 불리는 간단하고 짧은 스탠자(stanza: 4행 이상의 각운이 있는 시구)로 이루어지며, 이 모든 것은 같은 후렴으로 끝을 맺는다. 다른 말로 하면 콘타키온은 세심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장문의 신학적 시와 같은 것이었다.

로마노스 성인이 작곡한 많은 콘타키온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오늘날 '성탄 콘타키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가는 성탄절기에 불려진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꿈에 성인에게 나타나셔서 두루마리 하나를 삼키도록 주셨다. (에제키엘 2:8-3:3, 묵시록 10:9-10) 그날이 바로 성탄 전날이었으며, 로마노스는 잠에서 깨어나자 곧장 교회로 달려가 성탄 축일을 기리면서 그 유명한 콘타키온을 불렀다.

현재 성탄 축일에 우리가 성당에서 부르는 것은 24개의 스탠자로 이루어진 시적 성가의 도입부라 할 수 있는 단지 서곡만이다!! 하지만 비록 단순할지라도 이 성가는 그 신학적 깊이에 있어서 이전에 작곡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성가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 동정녀께서 본체를 초월하는 분을 낳으시니
땅은 범접할 수 없는 분에게 동굴을 제공하네!
천사들은 목자들과 함께 영광을 드리고,
박사들은 별따라 길떠났도다!
태초부터의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아이로 태어나셨음이니라!

또한 로마노스 성인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모기립찬양'을 작곡한 것으로도 여겨지는데, 이 성가는 아마도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면서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불려지는 찬미가이다.

▶ 아타나시아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6일(토), 축일을 맞이하는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축일을 축하하며, 12월 7일(토) 축일을 맞이하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어, 주님의 양 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1월 15일(금)에는 에드워드 민동희 유아가, 11월 23일(토)에는 강 소피아 유아가 로만 신부님의 집전으로 이루어진 세례성사를 통해서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성 니콜라스 축일 시작

오는 12월 1일 주일부터 성 니콜라스 성화와 성 유해를 성당 중앙에 놓으면서 축일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의 수호성인 축일에 동참합시다.

▪ 성 니콜라스 축일 일정

- 12월 5일(목) 오후 5시 30분: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리따니아
  오후 6시 45분: 성찬예배
  오후 8시: 축일 만찬
- 12월 6일(금) 오전 9시: 축일 조과
  오전 10시: 성찬예배
  오전 12시: 축일 오찬

■ 성당 대청소와 성탄절 장식

오는 오늘 12월 1일 주일 성찬예배와 사랑의 오찬 후에 성 니콜라스 축일을 준비하는 성당 대청소와 성탄절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간 예식

- 12월 2일(월) 성 뽀르피리오스 수도사제, 하바꾹 예언자, 성 미로삐 순교자 축일
- 12월 6일(금) 성 니콜라스 미라 대주교 축일
- 12월 7일(토) 성 암브로시오스 밀라노 주교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